■ 지역혁신 박람회 어떤 행사 열리나

광주 LED 밸리 등 성공사례 발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7일~12일)는 혁신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한 지자체와 연구기관, 기업체 등의 혁신 사례가 총 망라되어 있다.

'살기좋은 지역 우리의 힘으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의 산(産)·학(學)·연(硏)·관(官)의 혁신 주체들과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습과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진다.

지역 발전에 가장 기여한 사례를 한데 모은 '성공사례 발표회'에는 지역별 예선과 균형위 본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혁신 6대 분야 43건의 사례가 소개된다.

광주·전남지역 사례는 광주 금형산업과 광주 북구청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목포대 조선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를 활용한 신산학협력 모델개발, 광주테크노파크의 산업집적화 및 활성화, 광주클러스터추진단의 LED(발광다이오드)밸리 조성, 광주·전남혁신협의회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 등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진단·점검해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국내외 '컨퍼런스'도 52건이나 개최된다. 컨퍼런스는 지역혁신조직, 균형발전정책, 살기좋은 지역,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방안, 언론 NGO 등 6개 분야로 나눠 해당 기관들이 첨석한 가운데 열린다.

지역혁신 박람회 세부 행사

행사	일자	주요 내용
성공사례발표회	8일~10일	광주 금형산업, 장흥군 전국 최초 정남진 토요시장 운영 등 49개 사례
지역투자유치 상담회 및 심포지엄	7일~12일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심포지엄 (8일 오전 9시30분~12시30분)
컨퍼런스	7일~11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미나, 언론 NGO세미나, 주요 균형발전 정책 관련 세미나
전시행사	7일~12일	균형발전정책관, 지역혁신관등 5개 테마별 535부스 운영
문화·이벤트행사	7일~12일	지역특산한마당·백일장 (박람회 참관기 공모전) 한마음 걷기대회 (11일 오전10시 광주, 오후2시 함평)

6대분야 43건 사례 소개
국가균형발전 컨퍼런스
체험관 등 535개 부스 운영

지역투자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지역투자유치 상담회 및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컨벤션센터 2층에서 지역투자유치상담회가 열리며, 심포지엄은 이날 9시30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사례발표와 지역투자 유치 관련 주제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 대학, 연구지원기관, 중소기업 등의 지역 혁신의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전시회도 행사 기간 동안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전시회에는 균형발전정책관과 지역혁신관·지역산업혁신관·살기좋은 지역관·체험관·기타관 등 주제별로 총 535개 부스(전시 457개, 체험관 63개, 휴게관 15개)가 설치된다.

이 중에서도 체험관에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3D입체 영상기술을 이용한 문화콘텐츠 시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 기술체험 ▲벽산건설-FTTH기술을 활용한 미래주택 체험공간 ▲한국디자인진흥원-대나무 효능체험, 야생화 압화 제작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문화행사도 컨벤션센터 앞 도로 특설무대에서 매일 열려 행사분위기를 돋울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오동팔 품바공연(10일 오전 11시)과 경기도 안성 남사당놀이(11일 오후 3시) 등 7개 시도 8개공연과 광주시·전남 개최시도 8개 공연, 기획문화공연 3개 등 총 19개의 공연이 열린다.

전국의 유명 특산물을 모두 모은 '지역특산한마당'은 전시판매장(58동)과 김치테마관(4동), 먹거리장터(20동) 등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보고 먹는 즐거움을 선사해 줄 전망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행사 관계자들이 대회장인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는 6일 서울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12 여수박람회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등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도 국고 지원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국고예산확보 총력전

박준영 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

전남도가 국회 심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사업 및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열 의원을 비롯한 전남 출신 국회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교환됐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내년도 국고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23건 5조 4천881억원의 국고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결과, 현재 정부예산안에 379건 4조 7천718억원이 반영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 4조 3천415억원에 비해 4천303억원(10%)이 늘어난 액수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한국사회 부패 여전하다

부패인식지수 42위 2단계 하락…아시아 주요국에 큰 폭 뒤져

한국의 부패 정도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 주요국가들에 비해 큰 폭으로 뒤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는 6일 서울 안국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2006년 부패인식지수(CPI)가 작년보다 0.1점 상승한 5.1점(10점 만점)이라고 밝혔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점수로 매긴 것으로,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올해는 세계경제포럼(WEF) 등 9개 기관이 다국적 기업 관계자와 각국 기업인, 국가 애널리스트 등을 상대로 조사한 12개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했다.

올해 한국의 점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 조사 대상인 163개국 중 42위에 그쳐 40위(조사대상 159개국)였던 작년보다 오히려 2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에서도 2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OECD 국가의 평균 점수인 7.18점보다 2.08점 가량 낮았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95년 4.29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1999년 3.8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에는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이주여성 정착지원 급하다

송기동
사회2부 차장

지난 4일 화순 군민회관. 필리핀과 베트남, 몽골, 중국 등 한국으로 시집온 국제 결혼 이주여성 40여 명이 환한 표정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윷놀이와 단체 줄넘기를 즐기고 장고를 배우는 등 우리 문화체험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한 시민단체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간의 유대 증진을 위해 마련한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날'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제결혼 여성들은 가족들의 배려속에 한국생활에 잘 적응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도 한국생활에 완전히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소한 한국말과 자신의 고향과는 판이한 날씨, 음식 문화의 차이 등 이들이 극복해야 할 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부간 갈등과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역시 대다수 국제결혼 여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얼마 전 베트남 여행 도중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국제결혼에 대한 '솔직한' 현지 반응을 접할 수 있었다. 한국으로 시집간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남편의 폭력 등으로 끝내 헤어져 '코리안 드림'이 무참히 깨지는 사례가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결혼이민자 조사결과 언어폭력 31%, 신체적 폭력 14%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 실태조사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 732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32만 2천원으로 빈곤계층에 속하고 정부지원금 등 공적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 전부터 한국 농촌 총각들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들이 급증하며 '단일민족'에서 '다민족·다문화' 시대로 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5년 한 해 동안 결혼한 전남지역 농촌총각 5명 중 2명꼴인 428명이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 당연히 혼혈 2세들도 늘어나 전남지역에만 1천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결혼 여성과 혼혈 2세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회복지 대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화순의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 문화센터'에서 어렵사리 한글과 컴퓨터, 한국요리 실습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 등 문화교육, 출산 지원책과 2세를 위한 보육·언어시설확충 등 다민족 다문화 시대에 대비한 정책시행은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 이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해 한국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song@kwangju.co.kr